

# Kodex<sup>ETF</sup>와 함께 만드는 Viewtiful Week

조수민 책임매니저  
Vol.6 2024.11.12

## Executive Summary

- 트럼프 당선 확인 후 미국 시장 금리와 달러인덱스는 고점 확인 후 반락
- 13(수), 10월 CPI 발표: 물가에 대한 연준의 자신감 후퇴로 재차 높아질 물가 경계감
- 트럼프 당선+공화당 상하원 장악: 트럼프 트레이드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 염두

## ●●● 이번 주엔 무엇을 볼까

Red sweep:  
트럼프 당선 +  
공화당 상하원 장악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상과 달리 개표 초반부터 승기를 잡으면서,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무엇보다도, 공화당이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과반 이상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Red sweep(레드 스위프) 시나리오가 가시화됐다. 주식에서는 트럼프 수혜로 분류되는 업종 및 테마가 상승세를 지속하며 트럼프 트레이드가 연장됐다. 한편, 대선 전부터 트럼프 트레이드를 선반영해 온 미국 장기채(10년물, 30년물) 금리는 선거 후 반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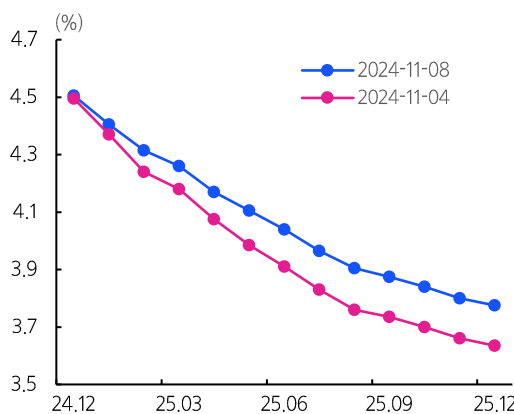
11월 FOMC:  
물가에 대한  
연준의 자신감 후퇴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한 11월 FOMC에서 연준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25bp 인하했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대선 결과와 관련해 정책이 구체화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기에, 이번 금리 인하 결정은 현재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11월 FOMC 성명서에서 '인플레이션 목표치 2%를 향해 가다는 자신감을 얻었다'는 문구가 삭제되면서 물가에 대한 연준의 자신감이 후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12월 금리 인하 여부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은 소폭 되돌려졌다[그림 1]. 파월 의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사퇴 요청 시 사임하겠느냐는 기자 질문에 "No"라고 단호히 답하며 임기(2026년 5월)와 연준의 독립성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10월 CPI(13일):  
재차 높아질 물가 경계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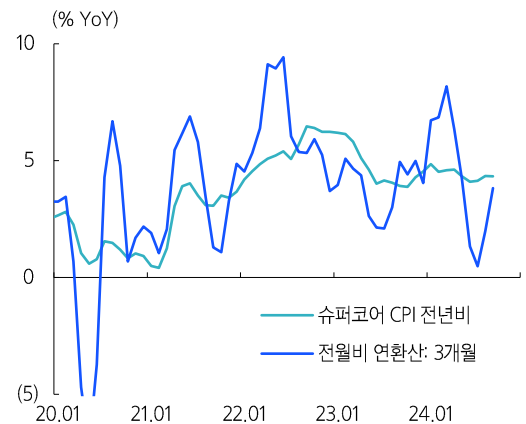
이번 주 시장의 관심은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13일, 현지시간), 생산자물가지수(PPI)(14일), 소매판매(15일) 등 다시 실물 지표로 이동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란 우려가 상당한 가운데, 10월 CPI가 컨센서스(헤드라인 2.6%, 근원 3.3% YoY)보다 높게 나올 경우 물가에 대한 증시 민감도는 재차 상승할 수 있다[그림 2]. 올해와 내년 투표권을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14일), 파월 의장(14일) 등 연준 주요 인사들의 발언도 금리 변동성을 자극할 수 있어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그림1] 금리 선물: 금리 인하 기대 되돌림



※ 자료 : Bloomberg, 삼성자산운용

[그림2] 슈퍼코어 CPI 추이



※ 자료 : Bloomberg, 삼성자산운용

●●● 삼성 Kodex 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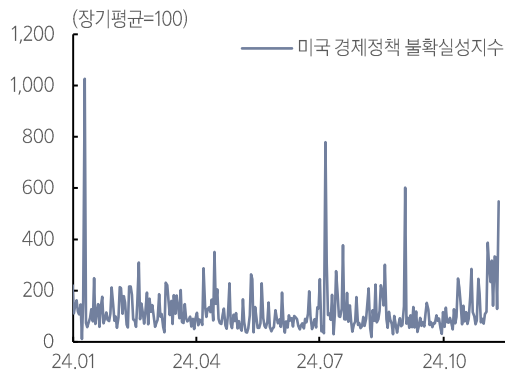
Red sweep으로  
당분간 트럼프 트레이드  
진행 지속될 수 있어

트럼프 1기는 저물가-저금리 국면에서 전개된 반면, 현재는 고물가-고금리 환경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 확정 후 금융 시장의 반응은 1기 때와 유사했다. 법인세 인하와 각종 규제 완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났다. 변동성 지수(VIX)는 대선 직전인 4일 22.0pt에서 11일 현재 15.0pt로 낮아졌으며, 금리 변동성을 나타내는 MOVE 지수도 유사한 궤적을 그렸다. 반면,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EPU Index)는 대선 이후 변동성을 보이며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그림 3].

트럼프 '자국 우선주의'는  
한국에 불리:  
국내 수혜 업종에  
차별적으로 접근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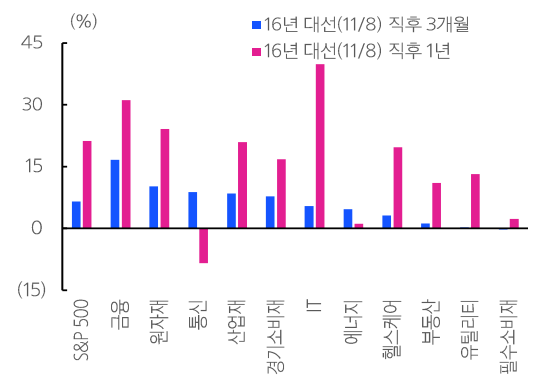
Red sweep으로 트럼프 정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라 기대감과 동시에 트럼프 2기가 가져올 불확실성이 수시로 유입되면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한동안 지속될 수 있다. 트럼프 정책 수혜가 예상되는 러셀2000, 금융, 산업재, 에너지 섹터 등에 관심이 필요한 이유다[그림 4]. 한편,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야기할 탈세계화 기조는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에 불리하다. 다만,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들도 있다. 트럼프가 협력을 요청한 조선과 미국 내 전력 인프라 현대화 과정에서 수주가 증가할 수 있는 국내 전력 설비 업체들이 대표적이다.

[그림3] 미국 경제정책 불확실성지수 추이



※ 자료 : Bloomberg, 삼성자산운용

[그림4] 2016년 대선: 직후 3개월vs. 1년



※ 자료 : Bloomberg, 삼성자산운용

●●● Viewtiful Week를 위한 삼성 Kodex ETF 3

**01**  
Kodex  
미국러셀2000(H)  
(종목코드:280930)

# 미국 중소형주(시가총액 1,001~3,000위)에 투자하는 대표 ETF

- 미국 총 GDP의 70%를 차지하는 내수 소비를 책임지는 중소형주에 모두 투자
- 주요 투자대상: FTAI Aviation, Sprouts Farmers Market, Vaxcyte 등
- 합성총보수 : 연 0.5544%, FY2023 기준 증권거래비용 0.0899% 발생, 위험등급: 2등급(높은 위험)

**02**  
Kodex  
미국S&P500금융  
(종목코드:453650)

# 미국 은행, 투자사, 카드, 보험 등 대표 금융주에 모두 투자

- 트럼프 당선인의 금융 규제(도드-프랭크 법 등) 완화/폐지로 수혜 전망
- 주요 투자대상: Berkshire Hathaway, JPMorgan, VISA 등 72개 종목
- 합성총보수 : 연 0.3878%, FY2023 기준 증권거래비용 0.2102% 발생, 위험등급: 2등급(높은 위험)

**03**  
Kodex  
미국S&P500산업재(합성)  
(종목코드:200030)

# 트럼프 2기 “제조업 르네상스” 추진 수혜가 전망되는 산업재 섹터

- 미국 내 리쇼어링과 인프라 투자 확대에 반사 이익이 기대되는 산업재에 투자
- 주요 투자대상: Raytheon Tech, Honeywell, United Parcel Service 등 75개 종목
- 합성총보수 : 연 0.3293%, FY2023 기준 증권거래비용 0.0022% 발생, 위험등급: 2등급(높은 위험)

※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참고 자료로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각종 자료와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작성되었으나 본 자료의 내용은 단순 참고용으로 향후 결과에 대한 보증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 관련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귀속되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Compliance Notice

---

- 본 자료와 관련한 저작권은 삼성자산운용에 있으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본 자료를 복제 및 배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본 자료는 참고 자료로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각종 자료와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된 것이나 본 자료의 내용이 향후 결과에 대한 보증이 될 수 없으며, 본 자료를 본래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삼성자산운용은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자료에서 소개하는 투자방법은 개별 투자자들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일반적인 내용으로써, 본 자료를 참고한 일체의 투자행위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투자자의 결정에 의하여야 하며, 당사는 투자자의 판단과 결정, 그 결과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외화로 표시되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환율변동 시 자산 가치가 변동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를 삼성자산운용 이외의 자로부터 입수하였을 경우, 자료 무단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제공자 및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을 취득 전 투자대상, 보수, 수수료 및 환매방법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구약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 및 환율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연금 외 수령시 세액공제 받는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한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며,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익금 분배 방식은 투자 결과에 따라 월지급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하는 경우 투자 원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 자료의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